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국내외 뉴진스 팬덤 버니즈 **11,475** 명 (문의: [heesoo ban, syweekly365@gmail.com](mailto:heesoo_ban_syweekly365@gmail.com))

[보도자료] 국내외 뉴진스 팬덤 **1만1천475명**, 하이브&어도어에
“어도어 대표교체, 민희진 해임은 하이브 횡포, 뉴진스 활동 차질, 피해
입혀” 사태 해결 촉구

배포일 : 2024. 9. 11.(수)

“국내외 뉴진스 팬덤 버니즈, 당일 이재상 하이브 대표와 어도어 이사진(김주영 대표 등)에게 보내는 2차 공개서한에 **1만 1천475명**이 모여”

“엔터업 無경력 하이브 인사 김주영으로 대표교체, 1주일 만에 주요 협력사와 신뢰관계 파탄, 팬들의 현 경영진에 대한 불신 자초”

“법원 결정 무시한 민희진 **ADOR** 대표 해임은 하이브 횡포, 뉴진스 후속 앨범 제작, 월드투어 준비 차질, 피해 입혀”

“뉴진스의 성공 공식은 경영과 제작의 분리로 가능하지 않아, 그룹의 브랜딩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과 통찰이 필요해, 경영진의 교체로 뉴진스의 음악과 색깔 훼손될 것 우려”

“하이브 **2.0** 선언대로, 엔터사로서 본분 잊지 말고, 소속가수를 **IP**로만 취급하지 않기를. 뉴진스가 행복한 환경에서 즐겁게 음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팬들의 요구사항 수용 촉구”

“**HYBE**가 **K-pop**을 선도하는 대기업으로서, 뉴진스와 **ADOR, HYBE, 나아가 K-pop**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태 해결하기를 촉구”

[공개서한 전문]

이재상 하이브 대표 & 어도어 이사진(대표 김주영)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수신인	하이브 대표이사 및 어도어 현 이사진 1.이재상(하이브 CEO, 어도어 전 사내이사) 2.김주영(어도어 신임 대표, 하이브 CHRO) 3.이경준(어도어 사내이사, 하이브 CFO) 4.민희진(어도어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5.이도경(어도어 신임 부대표, 사내이사) 6.김학자(어도어 사외이사, 미래에셋생명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발신인	국내외 뉴진스 팬덤 버니즈 1만 1천475명 (문의: heesoo ban <syweekly365@gmail.com>)

*하이브(대표 이재상)와 어도어(대표 김주영)는 1, 2차 공개서한에 대한 회신을 위 문의처로 **9/19(목)**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공개서한]

국내외 뉴진스 팬덤 버니즈 **1만 1천475명**은 지난 **9월 4일** 이재상 하이브 신임대표와 현 어도어 이사진(김주영 대표 등)에게 민희진 대표 임기보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으나 아직 답이 없어서, 추가 연명을 받아 **9월 11일** 당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2차** 공개서한을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더불어 팬들의 **1차** 공개서한 보도 이후 일부 반응에 대한 몇 가지 입장도 밝힙니다.

1. '특정 프로듀서를 대표로 선임하라는 요구는 팬들의 월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는 단순히 '특정 프로듀서'가 아니라, **ADOR**의 설립자이자, 방시혁 의장이 그 능력을 인정하여 **HYBE**의 총괄 브랜드 임원(**CBO**)으로 스카우트 한 사람이며, 뉴진스와 **ADOR**를 현재까지 성장시킨 핵심인물입니다. **HYBE도 그 능력을 인정하여 민 대표와 주주 간 계약을 맺어, ADOR 설립일로부터 5년 간 대표이사로 일할 권리와 의무를 둔 것이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635).**

그런데 **HYBE**가 선임한 **ADOR** 이사진들이, 지난 **8월 27일**, '경영과 제작 분리'라는 명분으로 갑작스럽게 민 대표를 해임하고 엔터업 경력이 없는 김주영 **HYBE** 인사를 대표로 선임함으로써, 후속 앨범 제작과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던 뉴진스의 향후 활동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원 결정을 무시한 민희진 **ADOR** 대표 해임은 사실상 **HYBE**의 횡포이며, 이로 인하여 뉴진스의 음악과 활동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우리는 팬으로서 우리의 우려와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엔터업은 단순히 공산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와 달리,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감, 상호작용으로 성장해 왔다고 믿습니다.

2. 경영과 제작의 분리가 원칙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뉴진스의 성공 공식은 경영과 제작의 분리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뉴진스가 **K-pop** 그룹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의 아이콘, 셀러브리티의 셀러브리티, '온세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룹의 브랜딩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과 통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경영의 영역인지, 제작의 영역인지 묻고 싶습니다. 뉴진스의 음반 제작을 누구에게 맡기며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할지, 뉴진스의 모든 음악에 **MV**를 제작하는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인지, 브랜딩의 관점에서 어디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어떤 방식으로 뉴진스의 음악과 컨셉에 연결하는지, 파워퍼프걸, 무라카미 다카시 등과의 협업처럼 **MV**, 굿즈 등을 제작하는 것은 경영의 영역인지, 제작의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 경영진(대표 김주영)이 그런 비전과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우려와 불안은, **ADOR**의 대표가 교체된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뉴진스와 주요 협업 창작자였던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고, 버니즈들은 기다리고 있던, **ETA, Cool with You** 메이킹 영상을 못 보게 되었으며, **Ditto**의 추억이자 감성인 '반희수 채널'을 잃을 뻔 했습니다. 뉴진스 팬들은, 현 경영진(대표 김주영) 하에서는, 뉴진스와 관련한 어떠한 작은 변경도 불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뉴진스의 음악과 색깔이 훼손될 것을 우려합니다.

3. **HYBE**의 미션 "**We believe in music**", '콘텐츠'와 '팬'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본분을 상기시키며

HYBE(대표 이재상)와 현 **ADOR** 이사진(대표 김주영)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엔터업의 경영 능력과 자원이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i) 유한킴벌리, 크래프트톤, 하이브의 최고인사책임자로서의 경력

ii) SM엔터테인먼트의 아트디렉터 총괄이사 및 등기이사, 하이브의 총괄 브랜드 임원, ADOR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의 경력

HYBE가 선임한 ADOR 이사진들의 결정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현 ADOR 이사진에 엔터업과 음악산업 경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ADOR와 뉴진스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배임행위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재상 HYBE 신임 대표는 최근 언론에서 '하이브 2.0'으로 본질인 음악 산업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팬들과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회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공급자가 아닌 팬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금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즐겁게 음악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소속 가수를 단순히 IP로만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팬들을 단순한 소비자로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HYBE가 K-pop 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팬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를 바라며, 뉴진스와 ADOR, HYBE, 나아가 K-pop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를 촉구합니다.

4. 우리의 요구사항

- 1) 뉴진스와 관련된 사항은 뉴진스 멤버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
- 2) 뉴진스 후속 앨범 제작과 월드투어 계획에 차질 없이, 멤버들이 음악과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희진 대표의 임기(최소 주주 간 계약에 따른 2026.11.까지)를 보장할 것.
- 3)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딥페이크 피해 등 적대적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

[1차 공개서한]

I. 우리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1. 뉴진스와 어도어(민희진 대표이사)가 이룬 성취

"뉴진스의 '숨털 강펀치'에 케이팝이 녹아 내렸다." 뉴진스는 2022년 7월 22일, 기존의 데뷔 공식을 깨고, <Attention>의 MV를 전격 공개하며, 트리플 타이틀곡(Attention, Hype Boy, Cookie)을 내고 데뷔 직후부터 신드롬급 인기를 얻었다. 뉴진스 멤버들과 음악, 패션, 무대, 안무, 화보, 광고가 화제가 되고, 데뷔 2년 만에 이룬 성과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주요 수상내역

- 2024 한국대중음악상 3관왕(올해의 노래 대상 Ditto, 최우수 케이팝 노래 부문 Ditto, 최우수 케이팝 음반 부문 Get Up)
- 2024 빌보드 우먼 인 뮤직 어워즈(올해의 그룹상)
- 2024 골든디스크어워즈 2관왕(디지털 음원 부문 대상 Ditto)
- 2023 멜론 뮤직 어워즈 5관왕(올해의 아티스트 대상, 올해의 베스트송 대상)
- 2023 MAMA 어워즈 4관왕(올해의 가수상, 올해의 노래상, 여자 그룹상,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여자 그룹)
-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Top Global K-Pop Artist)
- 2023 한국대중음악상 3관왕(올해의 신인 대상, 최우수 케이팝 음반 New Jeans, 최우수 케이팝 노래 Attention)
- 2022 골든디스크어워즈 2관왕(신인상,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 Attention)
- 그 외 다수

어도어의 영업 실적

2023년 매출액 1102억8300만원(전년대비 491.8% 증가), 영업이익 335억원,

당기 순이익 264억3400만원

2024년 상반기 매출액 615억원(전년 상반기 대비 38.9% 증가), 순이익 110억원

2. 우리는 뉴진스의 성장과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어도어를 원한다.

뉴진스는 지난 5월 더블 싱글 <How Sweet>를 발매하고, 지난 6월 일본 데뷔앨범인 더블 싱글 <Supernatural>을 발매하여 각 10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하고 있다. 콘서트 급 팬미팅을 도쿄돔에서 진행하면서 9만 여 석을 매진시켰고, 하니의 '푸른 산호초'는 일본과 한국에서 신드롬급 인기를 얻으며,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의 기획력에 대한 찬사를 들었다.

우리는 뉴진스와 어도어가 뉴진스 데뷔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룬 꾸준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7일, 하이브가 선임한 현 이사진이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 직에서 기습적으로 해임하고 2개월짜리 업무위임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제안한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 어도어 현 이사진은 언론보도를 통해 하이브 내 다른 레이블처럼 경영과 제작을 분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어도어가 타 레이블에 비해 더 높은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을 내고 있는 점을 보면 경영적 관점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다.

우리는 뉴진스가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룬 성과는 경영과 제작의 긴밀한 시너지를 통해서 성취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결과로 이를 증명했다. 오히려 이번 해임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듯이,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에 따른 풋옵션 권리(직전 2년간 어도어의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보유 주식의 75%를 하이브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민희진 대표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도어의 현 이사진이 뉴진스에 대한 성장과 지원 보다,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견제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어도어 설립과 뉴진스의 데뷔 직후부터 민희진 대표 하에 구축한, 뉴진스의 성장과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어도어의 인력과 체계가 변경되고 훼손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우리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짧은 기간에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어 낸 어도어의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과 존중을 원한다.

3. 우리는 뉴진스와 협업하고 있는 크reative 창작자들에 대한 존중을 원한다.

뉴진스의 성과는 어도어 내외부의 창의적인 아티스트 집단의 창작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능력으로 가능하였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인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하지만 엔터업계 경험이 없는 대표로 갑작스럽게 교체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돌고래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은, 뉴진스의 **MV Ditto, OMG, ETA, Cool with You**을 연출하는 등 뉴진스의 색깔을 만들어온 감독이라고 할 수 있다. **ETA** 뮤직비디오는 **MV**로서의 신선함 뿐만 아니라 광고로서 '원쇼 2024 광고제'에서 4관왕을 휩쓸었다. 하지만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의 새 경영진의 변화된 정책 때문에 더 이상 협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어도어"는 공식 계정으로 신우석 감독에게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경고하는 내용을 올렸는데, 이를 보는 팬들은 경악을 넘어 참담한 감정을 지울 수 없다.

어도어의 새 경영진이 저작권을 내세워, 관련 콘텐츠는 공식 채널에 올려야한다며 돌고래유괴단에 취한 조치와 대응은, 그동안 뉴진스와 관련한 창작자들의 색다른 실험, 작품, 콜라보, 감성을 사랑했던 팬들을 절망케 하고 분노케한다. 어도어의 새 경영진은 아티스트 권리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멤버들의 의견을 듣기나 한 것인지 묻고 싶다.

뉴진스의 MV와 음악은 기존의 공식을 깨며 CF의 배경 음악과 광고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일상에 스며드는 독보적인 마케팅 방식으로 제작되어 왔다. 이는 단순히 '경영'이나 '제작'으로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경영과 제작, 컨셉의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없는 현 경영진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II. 하이브와 어도어 현 이사진은 법원 결정을 준수하라!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이브에게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라,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설립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을 유지하도록 보장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민희진 대표의 해임사유는 소명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635).

하지만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의 현 이사진은 기습적으로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김주영 하이브 **CHRO**를 후임 대표로 선임하였다. 3년 차에 한창 성장 중인 뉴진스에게 현 시기는 너무나 중요하다. 뉴진스가 하반기 후속 앨범 제작과 내년 월드투어 계획과 준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능력이 증명된 민희진 대표를 배제하고, 엔터업계의 경력도 없고, 경영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김주영 하이브 측 인사를 후임대표로 선임한 결정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고, 뉴진스의 성장과 미래를 원하는 팬들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하이브는 언론보도를 통해 민희진 대표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 전까지 계약과 법적 의무는 지켜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도어의 현 이사진은 "뉴진스의 성장과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어도어의 운영을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 최선의 결정은, 뉴진스 멤버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뉴진스 고유의 색깔과 정체성을 유지하며, 뉴진스가 음악과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고, 어도어와 하이브에 최대 이익을 가져다주며, 나아가 **K-POP**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어도어는 버니즈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때로는 그 기대를 넘는 깜짝 선물을 주면서, 그 어떤 엔터사들 보다도 팬들과의 관계가 좋았다. 부디 어도어가 앞으로도 뉴진스 팬들과의 신뢰관계를 깨지 않고, 버니즈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기를 당부드린다.

2024. 9. 11.

뉴진스와 **K-POP**을 사랑하는

국내외 버니즈(a.k.a 반희수) 11,475명 일동

[버니즈들의 응원 한마디]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 뿐만 아니라, 뉴진스 팬 버니즈들과도 신뢰관계가 두텁습니다. 이렇게 팬덤과 엔터사 대표의 사이가 좋은 관계는 이례적입니다. 그 이유는 팬들은 민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뉴진스의 성공과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고, 필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며, 항상 팬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공개 서한에 연명한 버니즈 **11,475**명이 뉴진스와 민대표에게 남긴 응원의 한마디입니다.

* [버니즈들의 응원 한마디](#)

* [버니즈들의 응원 한마디 II](#)

* [버니즈들의 응원 한마디 III](#)

* [버니즈들의 응원 한마디 IV](#)

* [버니즈들의 응원 한마디 V](#)

* [버니즈들의 응원 한마디 VI](#)